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강남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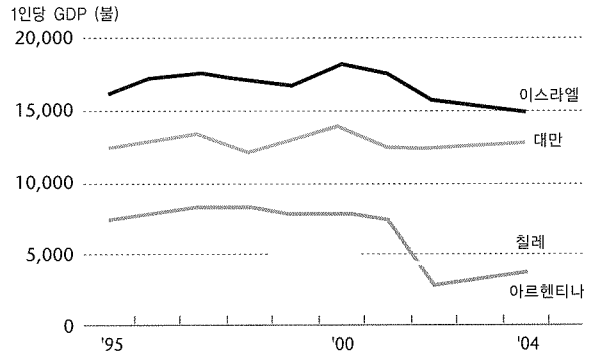
수출 2,847억불, 외국인 투자 115억불. 세계에서 12번째로 무역 규모 5천억달러 돌파. 작년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다. 1963년 5억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가 42년만에 1천배 이상 증가하였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1970년대 0.6억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2004년 967억 달러로 1,6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전체 수출의 38%, 제조업생산비중의 27%를 차지하는 국내 제1의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생산 대국이 되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 역시 희망적이다. 최근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상향조정하였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4.9%에서 5.1%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12월 JP모건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5%에서 4.7%올린 데 이어 모건스탠리는 3.3%에서 4.5%로 각각 올려 잡았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까지 내다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일본이 10년만에 재부활함에 따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는 "Nutcracker에 끼어있는 호두신세"라고 불안해한다. 국내적으로는 경제부문간 양극화 해소 등 고른 성장을 위한 숙제들도 풀어 나가야 한다.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개방 등 경쟁력을 높이는 여건을 조성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성장지체를 돌파하고 '00년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N자형 성장). 반면, 저임금·저비용을 바탕으로 중저가제품 중심의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각광받던 나라들 중 일부는 여전히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거나 국내시장을 보호하는데 치중한 결과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성장이 지체되었다(M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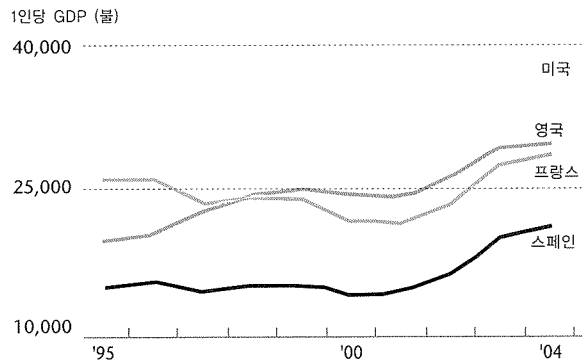
발전지속 국가(N자형)



성공요인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성장지체 국가(M자형)



지체요인

- OEM에 안주
- 신흥개도국 대비 차별화 실패

형 성장지체).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자원부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환경변화를 재조명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2015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관 공동 작업을 통해 얻게 된 결과는 "한국경제, 희망있다"이다. 역발상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면 2015년에는 GDP 규모가 10위 안에 들고, 1인당 GDP 3만 5천불의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첨단산업에서부터 단순 조립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산업을 모두 겸비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드문 산업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은 지난 40년간의 고도 압축성장을 통해 개도국이 경제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

만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국가역량이다.

오늘날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산업혁명신포럼 2005”에 참석한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현재 발생하는 변화를 단순히 극적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였다. 글로벌화, 정보화 등 변화의 파고 속에서 국가간·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업종의 개발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다.

현재의 디지털전자산업에서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BT, NT, ET 등 타 첨단산업과의 융·복합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수 년 후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산업과 제품이 출현하고 있다. 중국 등 BRICs는 풍부한 영토, 인구 및 지하자원 등을 토대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풍부한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주력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및 로열티 요구가 빈발하고 있으며 RoHS(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 지침),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교토의정서 발효(CO2 배출규제) 등 선진국 중심의 디지털 전자산업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유틸리티의 보편화

등 국내 생활환경의 변화로 전자산업의 컨버전스화, 유비쿼터스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쟁력 분석결과 일본이 투입자원 부문에서, 중국이 산업환경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IT기반, 양산기술, 도전·모험·민첩성 등이 강점인 반면, 원천기술, 설계기술, 부품·소재·광학기술이 취약한 점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전자 산업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으로 세계 3위 디지털 전자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산업구조의 약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디지털 전자산업이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Enabler Industry**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연평균 10%이상의 생산·수출 성장을 통해 2015년 전자산업 총생산 590조원, 수출 3,000억불, 세계시장점유율 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강국 실현

연평균 10%이상의 생산·수출 성장을 통해 '15년 전자산업 총생산 590조원, 수출 3,000억불, 세계시장점유율 14%를 달성

구분	2005	2015
세계시장점유율	11.2%(4위)	14%(3위)
생산규모	225조원	590조원
수출	1,028억불	3,000억불

Global 기술Leadership 확보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Infra 확충	Global Network 기반 강화
------------------------------	----------------------	----------------	----------------------------

이를 위해 글로벌 기술리더십 확보, 전자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디지털전자 혁신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11대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선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등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기

술 산업의 융복합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방·통융합, 가상 체험, 오감표현 및 Flexible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신시장 개척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겠다.

또한 현재 취약한 전자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부품소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차세대 수요 공급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의 협력약정서에 기초한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기술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업종단체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고 Digital Innovation Center를 건립하여 전문연구소, 벤처지원센터, 첨단외국기업 등을 집적화하는 한편, 인력·표준화·정보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끝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제 특허분쟁 및 환규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



술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한다.

세는 변화하고 그 폭과 속도에는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적응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Winner takes all”의 법칙이 적용되는 미래에는 변화에 순응하는데서 벗어나 변화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역발상이 필요하다.

기업은 선진기술을 모방·추종하는 fast follower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신기술·신시장을 창출하는 rule creator로 변신해야 한다. 글로벌 산업구도에서 적극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하여 스스로를 재정의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도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역할모델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법과 제도, 관행, 나아가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기업의 창조성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모델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될 때, 미래 한국산업은 “세계 산업구조의 보완자” 즉 “Global Industry Integrator”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다.

4대전략 11대 정책과제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강국 실현

Global기술 Leadership 확보

- 선별적 원천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 기술·산업 융복합화 Trend 주도
- 미래 신산업의 육성

Global Network 기반강화

-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 국제특허분쟁 및 환규제 대응체제 구축
- 해외 주요국과 국제 기술협력 강화

부품·소재 국제 경쟁력 강화

-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집중 육성
-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혁신 Infra 확충

- 인력·표준·정보화 등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 고부가가치기능 국제경쟁력 확보지원
- 지역별 혁신Infra 특성화 및 활성화